

2022학년도 2학기 교양대학 글말교실

# 기록과 성찰

글말특강 7회차\_ 박상경 교수님

## 글쓰기의 역할 (feat. 국민대 글쓰기 교재 p. 9-10)

---

- ✓ 자기 표현의 수단이자 의사소통의 수단
- ✓ 문제 인식과 해결의 과정 속에서 생각을 생성하고 발전시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성찰을 가능케 함
- 즉, 글쓰기 능력이란 각자의 일상 속에서 끝없이 성찰하고 소통하는 능력
- 우리 개개인의 삶을 고양하고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도구

# 글쓰기의 의미

---

- ✓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능력으로서 감정 교류 및 정보와 지식 순환, 소통의 주된 수단
- ✓ 체험과 사색을 기록, 진실을 담아내고 표명, 자기 탐색과 성찰의 과정을 경험, 더 나은 존재로 성장

# 글쓰기의 의미

---

사람들은 그 어떤 엄혹한 환경에서도, 그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글을 씁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글쓰기야말로 인간에게 남겨진 가장 마지막 자유, 최후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인간도 글만은 쓸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글을 쓸 수 있는 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글쓰기의 의미

---

글을 쓴다는 것은 한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압제자들은 글을 쓰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굴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글쓰기는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동안 우리 자신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기 전까지 몰랐던 것들, 외면했던 것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 글쓰기의 의미

---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쳤던 시절에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나는 용서한다'로 시작하는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용서한다'로 시작했으니 자연스럽게 그 뒤에는 그 때까지도 용서하기 어려웠던 사건이나 기억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때 나를 왕따 시켰던 아무개, 아이들에게 내 험담을 하고 나를 괴롭히라고 충동질하고 내 가방을 찢은 아무개, 이제 나는 너를 용서한다, 뭐 이런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 글쓰기의 의미

---

꼭 사실을 적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가상의 사례를 적어서 완성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문장을 쓰자마자 학생들은 무섭게 글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글쓰기를 통해 고통스러웠던 기억과 바로 대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실린 시간은 불과 몇 분도 안 되었습니다. 쓰다가 못 쓰겠다며 뛰쳐나간 학생도 있었습니다.

# 글쓰기의 의미

---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며 글쓰기를 포기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그 모임이 용서를 강요하는 회합도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그들에게 알려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 저 자신이 그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은 글쓰기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글쓰기는 우리가 잊고 있던, 잊고 싶었던 과거를 생생하게 우리 앞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 글쓰기의 의미

---

이것은 한 인간이 자기의 과거라는 어두운 지하실의 문을 열어 젖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왜 필요할까요? 그냥 묻어 두면 안 되는 것일까요? 꼭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중략) 글을 쓴다는 것은 인간에게 허용된 최후의 자유이며,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마지막 권리입니다. 글을 씀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폭력에 맞설 내적인 힘을 기르게 되고 자신의 내면도 직시하게 됩니다.

# 글쓰기의 의미

---

지금 이 순간도 뭔가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직장이나 학교, 혹은 가정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나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겪었거나 현재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글쓰기라는 최후의 수단에 의존한 것은 여러분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일단 첫 문장을 적으십시오. 어쩌면 그게 모든 것을 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김영하, 『말하다』, 문학동네, 2015, 56-60쪽-

# 성찰하는 글쓰기

---

"좋은 글은 진실한 글이다. 누군가 이야기를 만들어 내면 그 이야기의 진실성은 작가가 지닌 삶에 대한 지식의 양과 진지함의 정도에 비례한다."

- Ernest hemingway -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본인의 주체적 의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글을 써 본 적이 있나요?

# 성찰하는 글쓰기란?

---

- ✓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기
- ✓ 지금까지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 ✓ 글로써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 ✓ 구체적으로 자신의 서사(이야기, 에피소드)를 쓰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돌아보기
- ✓ 현재 관점에서 과거의 자신을 해석하고 평가하기
- ✓ 자신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해 보기
- ✓ 과거의 사고와 신념체계가 가지고 있던 왜곡을 수정하고 현재의 자신을 발전적으로 이끌기

## 에세이 같이 읽기 - 정여울, <그림자 여행> 중

---

한때 목공을 배운 적이 있다. 나무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 한없이 멋있어 보였던 시절이었다. 건축가와 목수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던 그때, 나도 무엇이든 한 가지 정도는 만들어 보리라는 결심으로 목공 수업에 등록했다. 그런데 목공을 시작하면서 마주친 것은 정작 나무 자체가 아니라, 내 참을성 없는 성격이었다.

나무에 연필로 선을 그려 정확하게 재단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톱질을 하다가 지쳐 땅바닥에 주저앉기도 여러 번이었으며, 대패질에 이르러서는 '나뭇결을 살린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좌절하고 말았다. 내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건 사포질뿐이었다. 무려 6개월의 고군분투 끝에 나는 테이블 하나를 만들고 장렬하게 전사했다. 돌이켜 보니 나무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결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 같다.

나는 목공을 배우면서 내게 나무의 결을 읽는 눈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숨결을 읽는 데 서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나만의 목적으로 사물을 재단하는 이기심 때문이었다. 나뭇결을 잘 살려 곱고 윤기 나게 나무를 다듬는 목공 선생님을 보며 나는 나무의 결을 읽는 데는 실패했지만 내 마음의 결을 이해할 수 있었다. 뭔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타인이 내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면 쉽게 토라지는 마음은 잘 부스러지는 나무, 그래서 가구나 집을 만드는 데는 결코 적합하지 않은 참으로 나약한 나무였다.

나무는 처음부터 가구나 집이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는다. 나무의 입장에서 사람의 손에 쥐어져 깎이고 베이고 문지름을 당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나 훌륭한 장인들은 나무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하지 않는다. 나무의 숨결을 이해하는 장인은 자신의 행동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나무의 숨결에 반응하며 나무를 달래고 위로하며 쓰다듬는다. 이때 나무는 무지막지한 전기톱에 잘려나가는 무력한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나무는 자신을 잘 달랠 줄 아는 사람에게 미묘한 덕을 허락한다고 한다. 휴버트 드레이퍼스와 손 켈리가 쓴 <모든 것은 빛난다>를 보면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다정한 친구처럼 인간의 마음을 알아주는 나무를 사랑한 장인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장인이 자신의 목적만을 내세우지 않고 나무와 대화하고 나무의 깊은 '결'을 이해할 때, 비로소 나무는 자신의 진정한 빛을 허락한다는 것이다.

나 아닌 다른 존재의 결을 이해한다는 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가진 고유한 빛을 향해 마음을 열어두는 행위다. 그러니 사물의 결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사물의 결, 인간의 결뿐 만 아니라 유행의 결, 문화의 결,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존재들의 '마음의 결'을 읽어내야 한다.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장인들은 또 어떤가. 바이올린의 활털 한 줌을 얻기 위해 저 멀리 시베리아의 상인들과 거래를 하는가 하면, 첼로 한 대를 만들기 위해 500시간 이상을 온전히 투자하기도 한다. 소리의 결을 만드는 장인들은 평생을 연구해도 모자란 지식과 경험의 바다에 자신을 내던져야 한다. 오디오 스피커를 만드는 사람들, 피아노를 만드는 사람들 등, 눈에 보이는 결보다 훨씬 포착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소리의 결'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진정 위대한 창조 행위를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존재의 '결'을 이해한다는 건 사물의 빛을 빼앗아 나만의 빛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이미 빛나고 있는 사물들에 맞춰 조율하는 것이다. 나무로 의자를 만든다면 나의 힘과 소질에 나무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무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 말하지 못하는 사물들의 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물들이 내고 있는 들리지 않는 신음 소리를 듣는 영혼의 귀를 활짝 열어 두어야 한다. 꽃을 기르는 사람들은 꽃이 얼마나 목이 마른지, 병충해를 입지 않았는지, 햇빛이 모자란 것은 아닌지 항상 살펴주어야 한다. 흙을 매만져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는 흙의 점성과 입자의 굵기는 물론 온도와 습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어야 아름다운 도자기를 구워낼 수 있다.

세계의 의미를 오직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이기심과 결별할 때 우리는 타인의 곁을, 사물의 곁을, 세상의 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대리석은 그 내부에 저마다 자기만의 조각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조각가의 일이라고 미켈란젤로는 말했다. 최고의 조각가는 대리석 내부에 잠들어 있는 미지의 존재를 깨뜨려 보는 사람인 셈이다. 그는 단단한 돌을 깨뜨려 잠들어 있던 아름다운 형상을 깨우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해방의 손을 가지고 있다.

위대한 작가들은 "내가 이 작품을 창조했다"며 뽐내지 않고 "세상 만물이 부르는 소리를 받아 적었을 뿐이다"라고 고백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속삭임, 영혼의 곁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창조라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또한 자기 마음의 곁을 읽어 낼 수 있는 이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이 손짓하는 내면의 곁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사유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 아닐까. 사물의 곁을 포착하여 사물 속에 숨겨진 최고의 빛을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존재의 곁'을 이해하는 위대한 창조의 몸짓이다.

# 성찰하는 글쓰기의 효과

---

- ✓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익숙해지므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유리한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 글쓰기 훈련을 통해 사고와 표현 능력이 좋아지고 글을 더욱 잘 쓸 수 있다.
- ✓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 이는 선택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 ✓ 상황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다.
- ✓ 자신에게 일어난 일, 그 가운데 자신이 취한 태도나 말, 행동을 돌아보고 과거의 자신을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
- ✓ 과거의 사고와 신념체계가 가지고 있던 왜곡을 수정함으로써 현재의 자신을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으므로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다.

# 성찰하는 글쓰기

---

성찰이 어렵다면  
기록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 인간 관계, 그때의 기분과 감정, 솔직한 생각,  
깨달음,  
새롭게 느끼거나 알게 된 것 등등...

## 사례 1: 8주 주간 일기 쓰기 활동 후 소감문

---

과제를 통해서 나는 글쓰기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처음에 나는 일기에 쓸 만한 것은 적어도 조금은 흥미롭고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단한 일은 그렇게 생각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조금 막막했다. 그래서 일단은 정말 별거 없는 일상의 내용도 적고, 내 기준 흥미로운 일이 있다면 또 그러한 내용도 적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별 것 없는 소소한 일상에서 내가 느끼는 힘든 점이나 즐거웠던 점을 적는 게 나름 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졌다.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 점은, 당시에 내가 느꼈던 기분이나 들었던 생각들을 날 것으로 풀어놓은 일기를 시간이 지나 다시 한번 보면 그때 당시 상황과는 또 다른 기분을 느끼거나 생각이 든다는 점이었다. 또 투정처럼 썼었던 힘들었던 날들에 대한 글을 볼 때는 내가 왜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았지? 왜 그런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힘들었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타개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이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도와주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 사례 1: 8주 주간 일기 쓰기 활동 후 소감문

---

마치 8주간의 일기 쓰기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하거나 즐거웠던 일들을 자랑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글을 편안하게 쓰는 습관을 들이니 정말 글쓰기에 대한 막막했던 두려움이 조금은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썼던 일기 중 아이유 콘서트장에 다녀와서 썼던 문장 몇 개가 기억에 남는데,

*'우리는 오렌지 태양 아래, 그림자 없이 함께 춤을 춰. 아이유의 에잇의 가사다. 아이유 콘서트는 말 그대로 저 문구와 흡사했다. 아름다운 노을 아래서 안 좋았던 기억들이나 기분들이었던 그림자들을 떼어내고 그 순간들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었다. 아티스트로서의 대단함도 한 몫했지만, 나에게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해줘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지은씨에게 감사했다.'*

다시 한 번 읽어봐도 그 날의 내가 했던 경험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일깨워주는 문장이었다. 이렇듯 일기를 쓰다 보면 아주 소중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일기쓰기를 과제로 시작한 것이었지만, 얻어가는 게 많은 과정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일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다이어리를 하나 마련했다. 스스로에게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문을 만들어주게 만드는 게 일기쓰기 같다.

## 사례 2: 꾸준한 성찰적 글쓰기 후 독립 출판

---

“일기처럼 글을 올렸고 그날 있었던 일을 정리하면서 의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오늘 즐겁고 힘들었고 억울했고 무탈했던 일들을 흘려 보내지 않고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의미 있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느낌이랄까요?”

그 과정이 너무 소중한 특별해서 계속 기억해야 할 것 같았고, 그리고 싶어서 책을 만들었는데 책으로 묶고 나니 한 챕터를 잘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 사례 2: 꾸준한 성찰적 글쓰기 후 독립 출판

---

2018년 4월 2일 월요일  
나도 피어날 수 있을까

치과 가는 길에 봄꽃이 핀 것을 봤다.

언제 봉오리를 품고 있었는지 눈여겨보지도 못했는데 밤새 하나둘씩 피어났다 보다. 개나리와 벚꽃, 목련이 제 색깔을 뽐내며 노란 언덕을 뒤덮고 있었다. 잠시 멈춰 핸드폰을 열어 사진을 찍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사진 찍는 사람이 또 보인다.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아직 만개할 때는 아닌지라 꽃이 채 피지 못한 허전한 가지들도, 봉오리인 상태로 기다리는 나무들도 있었다. 꽃은 제 때를 따라 핀다지, 생각하며 나 역시 그러리라 생각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제 때를 따라' 피게 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면 내 생에도 봄이 오겠지 하면서.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걸까 꽃이 봄을 부르는 걸까 하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읽어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며 치과에 도착했다.

치과를 다녀오는 길에 두 군데 서류 발표가 났다. 봄

비에 맥없이 떨어지는 꽃처럼 후두둑 눈물을 떨어뜨리며 같은 길을 다시 걸어왔다. 같은 꽃들을 다시 보았다. 예쁘고 부러웠다. 나도 때를 따라 피어날 때 피고, 열매의 계절에 열매를 주렁주렁 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괜히 꽃들이 미웠다.

문득 마음이 내려앉았다. 나도 피어날 수 있을까.

이 시기가 지나갈 거라 생각하지만 한 번씩 마음이 혹 무너지는 때가 있다.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뭐가 문제일까. 어디가 부족한 걸까. 그냥 나 자신이 문제일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를 파고 들어가 핏귀고 상처 내고 아프게 한다.

한 번 그러고 나면 마음이 너털너털해져 무엇도 할 수가 없다. 내가 리더십과 협업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나에 대한 애정도 믿음도 사라져서 내 안에 숨은 반짝이는 것들을 발견해낼 능력을 상실한다. 면접 준비와 인적성 시험 준비가 쓸모없게 느껴지고, 면접 볼 일이나 있겠나 생각하며 자조하게 된다. 서류조차 넘지 못하는 사람이 감히 면접에 눈 돌리는 것 같아 민망하고 화끈해진다.

## 사례 2: 꾸준한 성찰적 글쓰기 후 독립 출판

---

이후의 행동은 몇 가지로 나뉜다. 첫째, 떨어졌으니 서류를 더 써야 한다는 생각에 울면서 자기소개서를 쓴다.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이미 써둔 글들을 복사 붙여넣기 한다. 몇 군데에 휘리릭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열심히 했다는 흔적으로 마음이 좀 나아지기도 한다. 물론 비참하지만.

둘째,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날린다. 오락실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북을 치고 감정을 터트려서 후련해지려고 애쓰거나, 집에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우울하고 힘든 마음에 꼬르륵 잠겨 있다. 오늘만 쉬자,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하자, 하면서.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한다. 이러면 백이면 백 눈물바다가 된다. 위로가 되어 줄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다. 웬만하면 부모님께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취업준비 하는 친구라면 같은 기업에 썼는지 알아야 한다. 붙었으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떨어진 나에게 미안해할 걸 아니까. 그렇다고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먼저 묻는 것도 금기다. 직장인이나 학생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곤란해 하는 게 눈에 보인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난감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혼자 삼킨다.

매번 이런 건 아니다. 계속 떨어지다 보면 덤덤해지

고 이번에도 떨어졌겠거니, 자소서를 안 읽었을 수도 있겠거니, 채용 정원이 적었겠거니 하고 일상을 산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크레바스처럼 갑자기 혹 떨어지는 마음은 짐작할 수도, 대비할 수도 없다. 그저 너무 깊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달랠 방법들을 하나씩 만들어 볼 뿐이다.

오늘은 자기소개서 쓸 때 도와줬던 선배에게 불합격 소식을 전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잘 안 됐다고. 힘내라는 말 두 글자에 차곡차곡 쌓아뒀던 속상함이 와락 터졌다. 그렇지만 또 써야 하니까, 마음을 다잡으려고 글로 마음을 다 쏟아낸다.

상투적인 위로와 응원의 말들을 붙잡고 일상을 살아낸다. 이렇게 단단해지는 거겠지, 더 예쁜 꽃을 피우려고, 더 실한 과일을 맺으려고 더 힘든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오늘도 고생했다.

## 다양한 기록과 성찰의 도구들

---

- ✓ 기록과 성찰은 사적인 정보와 이야기가 담겨 있으므로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을 추천하지 않음.
- ✓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솔직하고 내밀한 기록을 위해서도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
- ✓ 자신에게 잘 맞고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록의 도구를 물색하고 사용해 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

# 블렛 저널(Bullet Journal)

---

- ✓ 블렛 저널: 빈 노트에 사용자가 모든 것을 직접 만드는 사용자 맞춤 다이어리
- ✓ 라이더 캐롤이 만든 효율적인 기록 도구
- ✓ 산만한 디지털 시대에서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기 위한 기록법
- ✓ 예쁘게 꾸밀 수도 있지만 꾸미지 않으며 실용성에 중점을 두는 것도 가능
- ✓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맞춰서 만드는 특징

# 볼렛 저널(Bullet 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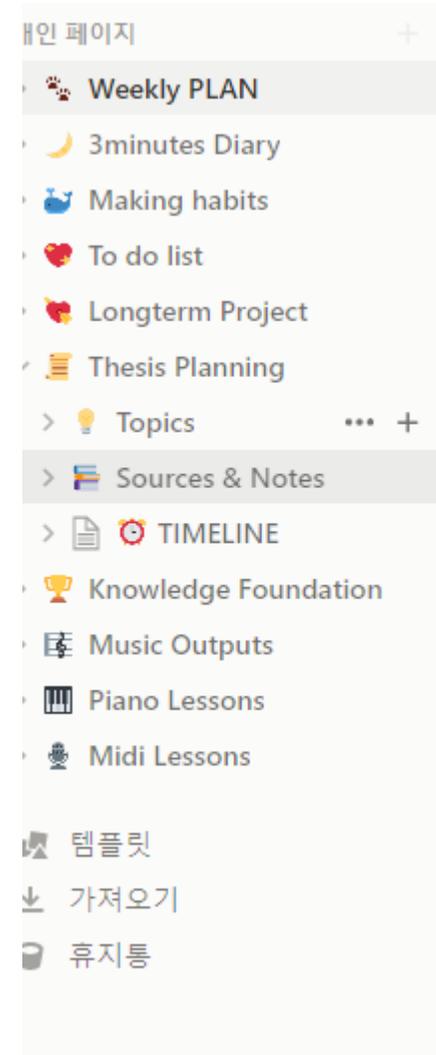


이미지 출처: 클래스 101 크리에이터 도르미 페이지

# 노션(Notion)

---

- ✓ 흩어진 자신의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기록 도구
- ✓ 디지털 기록 공간, 온라인 다이어리
- ✓ PC,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 연동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
- ✓ 사용자에게 맞게 업데이트가 진행된다는 장점



## 참고 자료

---

국민대학교 글쓰기 교재 편찬위원회, 『인문사회·예술 계열 글쓰기』, 국민대학교 출판부.

박혜주, 『까만밤의 인턴썰』, 까만밤.

정여울, 『그림자여행』, 추수밭.

김영하, 『말하다』, 문학동네.

도르미, <어지러운 세상, 흔들리지 않는 자기이해 비법! 불렛저널 및 노션 입문하기>, 클래스101.